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5

##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 청·장·노년층 한마음 질주 목포지역 대표 주자 넘본다

### 새목포마라톤클럽

“열정과 끈기로 끝까지 달려 목포마라톤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3·1절 마라톤 대회에 단체로는 처음 출전하는 ‘새목포마라톤클럽’(회장 장수환·이하 ‘새목포’)이 ‘확실한 신고식’을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07년 창단된 ‘새목포’는 현재 회원 60여명에 달하는 목포지역 대표적인 마라톤동호회이다. 이들은 비교적 엄격한 규율 속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팀워크를 다져오고 있다.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

으로 구성된 동호회인 만큼 노년·장년·청년층이 조화를 이뤄 대가족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새목포’의 만형 역할을 하고 있는 72세의 박강길(초대회장)씨는 지금도 정기훈

### ‘3·1절 마라톤’ 처녀 출전

련에 빠지지 않고 참가해 젊은 회원들에게 뒤지지않는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하프코스 1시간40분대의 기록을 갖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질순 기념으로 풀코스를 완주, 노익장의 투혼을 발휘하기도 했다.

박 씨는 건강 비결에 대해 “꾸준히 운동하고, 밥 잘 먹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

다”면서 “체력이 허락하는 한 달리기는 계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목포’에는 7명의 여성회원도 있다. 이들은 결코 남자들에게 밀리지않는 기량으로 출전 대회마다 조금씩 기록을 단축시켜가는 ‘마라톤 여걸’들이다. 이들 중 달리기 10년 경력의 박은성씨는 올해 첫날 중국 하문시에 열린 마라톤대회에 목포대표로 뽑힌 영광도 누렸다.

모임의 총무 역할을 하고있는 박종오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애경사는 빼먹지않고 챙겨 끈끈한 가족애를 키워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마라톤 경력 1년6개월의 박 국장은 또 운동 시작 6개월만에 풀코스를 완주하는 ‘초



이번 3·1절 마라톤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새목포마라톤클럽’은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참가자 40명 모두 완주, 목포지역 동호회 대표주자로서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고속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새목포’는 겨울에는 화요일과 토요일,

### 매주 화·토요일 두차례 훈련

매주 두차례씩 훈련을 한다. 화요일엔 저녁 8시 유달경기장에 집결, 400m 트랙 25바퀴씩을 달린다. 토요일엔 로드레이스로 목

포해양항만청을 출발해 영산강 하구~나로도 공원을 거쳐 돌아오는 11.5km 구간을 달리며 실전 감각을 익힌다.

‘새목포’는 운동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한다. 운동 효과를 높이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있어 식사나 술자리 없이 바로 귀가한다는 것이다.

박종오 국장은 “힘들게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술 마시면 되려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들 모두 술자리는 자제하는 분위기이다”고 설명한다.

‘새목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마라톤 클럽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힘찬 질주를 펼치겠다”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미야자키는 야구인 ‘만남의 장’



##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기자



KIA·두산 프렌트·한화 송진우 등 속속들이 도착

삼성 야수조는 오키나와...日 열도 ‘기회의 땅’으로

일본이 2010시즌을 앞둔 프로야구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3일 인천공항에는 각각의 꿈을 안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는 야구인들이 눈에 띄었다. 관에서의 1차 훈련을 마무리 한 삼성 라이온즈 야수 선수들이 먼저 일본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시즌 13년 만에 포스트진출이 좌절됐던 삼성은 명예회복을 노리며 관에서 구슬땀을 흘려왔다.

투수조보다 앞서 삼성 야수조들은 3일부터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고 주니치 등과의 연습경기를 준비한다.

절치부심 시즌을 준비해왔던 선동열 감독은 한층 날렵해진 몸매를 드러내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미야자키 여행에 나선 인물도 있었다. 21년의 야구인생을 뒤로하고 지도자의 길을 밟게 된 한화외 송진우가 요미우리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길을 나선 것이다.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던 송진우는 올 시즌 구단의 지원으로 일본의 명문팀 요미우리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게 됐다. 3월1일부터 정식으로 지도자 과정을 밟게 되는 송진

우는 미리 요미우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3일 캠프가 마련된 미야자키를 찾았다.

미야자키 휴가시와 사이트에서 각각 전지훈련 중인 KIA와 두산의 프런트들이 송진우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관계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미야

## 김병현, 마이너리그 캠프서 시즌 준비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마이너리그 계약한 김병현(31)이 빅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 스프링캠프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김병현과 함께 계약한 호라스오 라미레스를 중순부터 에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시작할 스프링캠프에 부르지 않고 마이너리그 캠프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을 쓴 크리스 헤프트 기자는 “이는 구단이 김병현 등을 절대 무시한 게 아니다. 자이언츠는 시범경기 중 마이너리그 캠프에

자기공방은 야구인들의 ‘만남의 장’이 됐다.

송진우는 “선수로 생활할 때는 내 몸만 잘 살펴본 됐는데 앞으로는 두루 선수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좌완 투수가 약한 요미우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쥐 좋은 환경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새 출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최고령 슬러투수, 최다 탈삼진 등 한국프로야구 마운드의 역사 송진우는 “3전이닝의 기록이 아무래도 가장 뜻깊은 것 같다”며 “젊은 투수들이 체격과 기술이 좋아진만큼 더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골프국가대표 선수들도 미야자키로의 장도길에 올랐다. 감독과 코치 및 12명의 남·녀 선수로 구성된 골프국가대표팀은 오는 17일까지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 /wool@kwangju.co.kr

서 선수를 자주 불러 기량을 테스트해왔다”며 일상적인 방첨이라고 소개했다.

보비 에번스 샌프란시스코 운영팀 부단장도 “때가 되면 이들이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김병현이 스프링캠프 초청선수에서 빠졌지만 도리어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2년간 팀을 찾지 못해 무적 선수로 살았던 김병현은 마이너리그 캠프에서 실전감각을 되찾고 더 완벽한 컨디션에서 3년 만에 빅리그 복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타격 인스트럭터로 KIA 캠프에 참가한 미츠바라(왼쪽) 코치가 3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키나와하마구장에서 신인 홍재호의 타격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출신 김택수

### 남자탁구대표 사령탑에



‘왕년의 탁구 스타’ 광주 출신 김택수(40) 대우증권 총감독이 남자 탁구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탁구협회(회장 조양호)는 3일 유남규(42) 전 감독의 사임으로 자리가 빈 남자 대표팀 사령탑으로 김택수 총감독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택수 선임 감독은 오는 5월 러시아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와 11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대표팀을 지휘한다.

광주 송일고 3학년이던 지난 1987년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김택수 감독은 17년 가까이 남자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1980년대 말에는 김완과 김기택, 안재형, 유남규 등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1992년 유남규(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가 허리 부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자 대표팀 에이스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단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 호쾌한 드라이브 쇼를 펼치며 단식 정상에 올랐던 그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직전 천영석 전 탁구협회장의 권유에 따라 대표팀 코치를 맡으면서 선수 생활을 접고 지도자로 변신했다.

김택수 감독은 아테네올림픽에서 유승민(삼성생명)이 만리장성을 허물고 단식 금메달을 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07년 5월 재창단된 대우증권 총감독을 맡아 외인부대인 대우증권이 각종 대회에서 강팀들을 꺾는 ‘테이블 반란’을 일으키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int.com

본점 (062) 227-9940

충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여산점 (063) 851-2422